

개봉전부터 뜨거운 '서부전선'

9월중순 공개...남북한 대치 국면과 맞물려 관심



북한의 경기 파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복합지뢰 매설과 포격 도발을 둘러싸고 남북한의 긴장상태가

이어지면서 남북 갈등의 실제 진원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서부전선'(사진)이 새삼 관심을 얻고 있다. 설경구와 여진구가 주연한 '서부전선'(감독 전성일·제작 하리마오피체스)은 주말인 21일부터 23일 사이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개봉예정영화 검색순위 1~2위를 오르내렸다. 9월 중순 개봉예정으로, 아직 영화가 본격 공개되기까지 한 달의 시간이 남았지만 최근 남북한 대치 국면과 맞물려 일찌감치 시선을 모은 까닭이다.

'서부전선'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직전의 상황을 그린 영화다. 농사를 짓다가 영결결에 전장으로 끌려온 중년의 남한군(설경구)과 노모를 고향에 홀로 두고 북한군이 된 18살 학생(여진구)이 전쟁의 운명이 걸린 비밀문서를 손에 넣기 위해 벌이는 대결을 그리고 있다.

참혹했던 한국전쟁이 배경인데다, 실제로 현재 서부전선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뿜도는 상황까지 겹쳐서지만 이와 달리 영화가 담은 시선은 따뜻하고 훈훈하다. 휴머니즘에 주목한 영화는 전쟁과 무관해 보이는 남북한 줄병이 겪는 상황을 인간미 넘치게 그렸다.

이를 강조하듯 설경구는 "어느 한 장면도 농치기 어려운 따뜻한 영화"라고 했고, 여진구 역시 "인간적인 면을 강조해 감동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800만 관객을 모은 '해적:바다로 간 산적'과 영화 '7급 공무원'의 시나리오를 쓴 천성일 작가의 감독 데뷔작이란 점도 '서부전선'의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이해리 기자 gol1024@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서세원·서정희, 결혼 32년 만에 이혼

방송인 서세원(59)·서정희(55) 부부가 결혼 32년 만에 이혼했다. 두 사람은 2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합의로 마무리했다. 작년 7월 서정희가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만이다. 서정희 측은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앞서 합의한 내용이 있어서 이행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정희는 서세원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해 그를 고소했고, 해당 사건이 이혼 소송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영화 '암살' 1150만 돌파...역대 흥행 톱 10 진입

전지현 주연 영화 '암살'이 역대 개봉영화 가운데 흥행 톱10에 진입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암살'은 22일 19만930명을 모았고 23일에도 관객이 몰려, 누적관객 1150만 여 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암살'은 기존 흥행 10위였던 '변호인'(1137만)은 물론 9위인 '해운대'(1145만)의 기록까지 뛰어 넘었다. 7월22일 개봉한 '암살'은 5주째 주말에도 관객 동원이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에 활약한 독립군의 이야기가 광복70년과 맞물려 장기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최민수(오른쪽)의 PD 폭행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나를 돌아봐'의 출연진.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폐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제공 | KBS

‘나를 돌아봐’, 역지사지 프로그램 맞아?

최민수 폭행 논란으로 사면초가

PD협회 하차 촉구...시청자 폐지 요구
최민수 사과 불구 프로그램 존폐 위기

최민수의 PD 폭행사건 여파로 21일 방송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결방이 확정됐던 '나를 돌아봐'가 28일에는 정상 방송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청자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비난 여론도 찾아들지 않고 있다. 7월24일 방송을 시작해 이미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른 '나를 돌아봐'가 한 달 동안 과연 시청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두

고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다.

상대방을 통해 나를 돌아본다는 '역지사지' 콘셉트의 예능프로그램인 KBS 2TV '나를 돌아봐'는 19일 발생한 최민수의 외주제작사 PD 폭행사건(스포츠동아 8월 20일자 10면 단독보도)으로 출연자 하차와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에 직면했다.

21일 한국독립PD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민수의 폭행사건을 "독립제작자들을 '을'로 보는 '갑'의 고질적인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비상식적인 제작사와 KBS의 무책임한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23일 오후 현재 '나를 돌아봐' 시청자 게시판에는 최민수 하차를 비롯해 프로그램 폐지를 해야 한다는 거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냉랭해진 여론을 의식한 '나를 돌아봐' 제작진은 21일 당일 급하게 결방을 결정했지만 이를 두고 "프로그램 폐지 수순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23일 '나를 돌아봐' 제작 관계자는 최민수 하차 및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면서 향후 변동 없이 방송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제작진은 당장 28일 방송에서 최민수가 폭행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내

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논란을 빚을 때마다 제작진이 선택한 방식과 비슷하다. '나를 돌아봐'는 방송 전 제작발표회에서 벌어진 조영남, 김수미의 언쟁과 이로 인한 하차 선언, 번복 등을 몇 주간의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나를 돌아봐'가 제작진의 출연자 통제불능과 프로그램 내 잡음을 여러 차례 드러낸 가운데 시청자들도 역시 '더 이상은 수신료를 내면서 참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청원게시판에는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시청률 20% '용팔이', 멜로라인도 통할까?

그야말로 '용한' 주원이다. 그는 방송 6회 만에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파란을 일으키는 SBS 수목드라마 '용팔이'(사진) 인기의 중심에 선 인물로 꼽힌다. 안정된 연기는 물론, 액션까지 선보이며 다재로능 매력으로 어필하고 있다.

주원은 드라마에서 외과의사 김태현 역을 맡았다. 극중 여동생의 수술비에 쓴 사재를 갚기 위해 조직폭력배들에 왕진을 다니고, 이복 오빠(조현제)에 의해 강제로 코마상태가 된 김태현을 목숨 걸고 살려주는 등 인간적인 면모가

지 보여주면서 주원에게 더욱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흡입력 있는 캐릭터와 열연 덕분에 광고는 7~8회 모두 완판됐다.

12일 방송한 5회부터 김태현이 잠에서 깨어나고, 주원과 함께 반격을 예고하면서 두 사람이 만들어낼 시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19일 방송하는 7회부터 두 사람의 멜로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제작진은 메디컬드라마라는 큰 틀 속에 지금까지 이어온 빠른 속도감과 긴장감을 계속

빠른 전개·긴장감 넘치는 연기 호평 속 7회부터 김태현과의 사랑이야기도 첨가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태현과의 멜로에서 드러날 주원의 남성적인 매력이나 한번 시청률 상승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원은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시청률이 전부가 아닌 것은 알지만, 그래도 좋은 건 어쩔 수 없다"면서 "6일 밤낮을 꼬박 새우며 촬영하고 있는데도 힘든 걸 모르니 역시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joy@donga.com

에너지절감(최대66%)—신기술 조명등 개발
장수명(10만시간 22년사용)

月:₩25,000원
공장전등교체

현재전등 전기료대비 60%이상 전기료절감
밝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성증대

- * 현재전등 조도(밝기)대비 배 이상의 밝기
- * 제품불량률감소 및 작업환경개선~능률향상
- * 전등수명 연장으로 재구매비 절감효율
- * 눈부심 제로

(주)일광 무전극램프(Naver ▶ "(주)일광")

삼원B/L (주)일광 TEL: 051-527-8001
FAX: 051-522-8002
부산시 남구 유엔로 124

(주)일광 신기봉소장
T: 010-7522-4345

환절기 지치고 허약한 몸에 활력을!!

백령도 방목 "약속흑염소"

백령도는 일년중 반년이상 해풍해무로 묻혀있어 천연성분인 '듀코젠E'가 풍부한 토종 짜주아리 약쑥이 유명하다. 약쑥 못지 않게 유명한 한 가지가 방목흑염소이다. 흑염소는 예부터 신비의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초식과 열대 뿌리를 고루 먹는데 약초가 풍부한 백령도에서 방목 야생화되어 스스로 삼지구엽초, 하수오, 솔잎 등을 찾아먹어 약용으로 인기가 높다. 심지어 개구리나 뱀도 잡아먹기도 한다. 흑염소는 지방질 함량이 적은 저칼로리 동물이면서 약쑥과 함께 먹으면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이 있어 살찔염려가 없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 ✓튼튼한 위장을 원하십니까?
- ✓소발 아랫배가 따뜻해지길 원하십니까?
- ✓기력증진을 원하십니까?

이른 아침 약쑥 한잔, 속 편한 세상 시작! 솟구치는 활력, 내몸이 반긴다. 위장이 웃는다

갈슌은 소 돼지 닭에 비교하여 약 10배 이상이나 되며 토코페롤로 알려진 비타민 E는 100g 기준 45mg이나 들어있으며 철, 인, 성분이 많아 예부터 출산후에 친어머니가 해주던 귀한 보양식이다. 노약자나 임신부 발육기의 짜주아리 약쑥과 방목 흑염소 산삼배양근 까지 강력 시너지효과

청소년 및 지치고 허약한 중년 남성 갱년기 여성등의 영양공급원으로 애용되고 있다. 또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위장에 좋은 약쑥과 함께 먹으면 동물성과 식물성의 영양밸런스를 맞추어 주어 최상의 찰떡궁합 식품이라 하겠다.

백령물산 약쑥은 3년 숙성 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축발명특허(제 0429141호)와 함께 ISO위생 국제인증도 받아 웅진군 특산단지 1호로 지정된 품목이다. 환절기 보양식 백령도 약쑥흑염소는 백령도 토종약쑥과 방목흑염소 100년 산삼배양근을 주원료로 1박스 42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 특별 이벤트 중이다.

백령도 약쑥흑염소
문의 1566-7172



통탄 서울동대문 2011제0042호